

# 民族文化와 韓醫學

韓醫學博士 金

勳

## <目 次>

一. 序言.....	四. 民族醫學의 地位 .....
二. 韓國醫學의 脈 .....	五. 結論.....
三. 韓醫學과 文化的 矜持.....	

### 一. 序 言

한 民族에게는 그 民族固有의 言語, 風俗, 生活感情, 傳統 등을 토대로 한 文化가 있고 그 文化는 바로 그 民族의 特性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어느 民族이고 自國이 文化를 所重히 여기며 宣揚하러 하는 것은 當然한 民族의 情感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文化란 긴 세월을 두고 서서히 形成되는 것이므로 한 文化가 時代的 變遷을 따르지 못하거나 時代가 傳來되는 文化를 收容하지 못할 때에는 그 文化는 그 이상 發展되지 못하고 史的 遺物로 衰殘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옛날에 燦爛하던 文化가 오늘에 와서 衰退할 수 있고 옛날에 未開하던 文化가 오늘에 와서 꽃 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결국 文化란 그 나라의 國力の 盛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文化史를 통하여 볼 때 특히 敵治 40年間に 걸친 우리 文化의 輕視와 沈滯는 말할 것도 없이 日帝의 우리 民族文化 抹殺이란 強要된 植民地正策때문이었겠지만, 光復後 半世紀에 가까운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 民族文化의 輕視的 制度和 政策은 다름아닌 우리 自意에 의한 조치이고 보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光復後의 對民族文化政策에 있어서 특히 韓醫學의 경우를 考察해 보면, 韓醫學은 5,000年 韓民族의 歷史와 더불어 傳承해 온 傳

統醫學으로서의 歷史的 價値를 잃지 않게 現代人의 疾病治療에 卓効를 나타내는 治療現實的 價値가 더욱 發揮되므로서 많은 西歐醫學圈에서 새로운 관심사를 갖고 있는 追勢인데, 그 宗主國인 우리 나라에서의 처우는 어떠한지 民族文化宣揚을 위한 國民의 良心과 國民保健向上을 위한 醫學發展의 兩次元에서 밝혀져야 할 課題라 思料되 옴기 이 글을 쓰는 바이다.

### 二. 韓國醫學의 脈

醫術의 起源이 人類文化의 發祥과 더불어 시작되면서 우리의 醫學은 우리 疆域의 地理的 特性을 띠고 一般的인 古代醫學知識의 變遷過程을 겪으면서 數千年의 세월을 지나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醫學의 脈流가 있는 것이다.

三國遺事의 記錄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檀君 時代에 艾와 蒜을 飲藥의 矯矢로 사용하였으며, 石器時代에는 石礮, 石針, 骨針 등을 사용하였던 史實이 遺物의 出土로 밝혀지고 있는가하면, 古朝鮮時代에는 兎絲子, 棗栗 등 여러가지 우리의 特産藥材가 있었다는 山海經의 기록으로 보아 이미 漢土와의 醫藥交流를 통하여 輸出까지 하였을 것으로 보아지며 飲藥, 敷藥, 煮藥 등도 있었다고 하니 그 당시의 우리의 醫藥은 상당한 水準에 처하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三國時代에 들어 와서 우리 醫學은 中國醫學의 學術的 體系에 接하므로서 그

로 인한 많은 理論의 發展을 齊來케 되었으나 그동안 長久한 歲月을 통하여 우리 固有醫學의 基礎가 構築되어 있었으므로 流入初期에는 우리 固有醫學의 特性을 充分히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思料된다. 그것은 唐書나 日本古書에 남아 있는 高麗老師方, 百濟新集方, 新羅法師方 등의 三國時代의 우리의 方文들로 充分히 立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醫學의 學術的 理論을 吸收한지 千年에 가까운 世月이 지나면서 우리의 醫學은 漸次 中國醫學의 理論의 體系에 同和되어 우리 固有性이 衰退되고 말았던 것이니 高麗朝에 와서는 이의 回復을 爲하여 醫藥自立思想이 萌芽하므로서 많은 우리나라의 醫方書가 刊行되고 唐藥에 對應하여 國產藥材를 雜藥이라 呼稱하면서 우리 醫藥의 自主性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精神은 朝鮮朝에 와서 더욱 高潮되어 雜藥集成方, 醫方類聚 등을 비롯한 많은 大한 醫藥書가 編纂되었는가 하면, 그 위에 우리의 自主性과 獨自性을 우리나라의 別稱인 東國을 바탕으로 命名한 東醫寶鑑은 東洋醫學의 百科辭典的 存在로 韓國醫學의 脈을 對內外에 재확인시켰던 것이다. 더욱이 最近世에 와서 從前의 辨證論治와는 判異한 體質論治의 四象醫學을 提唱한 東醫壽世保元은 未曾有의 獨創的 韓醫學으로 韓醫學文化圈에서의 새로운 面貌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脈流를 形成하며 傳承해 오던 우리의 醫學은 西洋醫學이 流入되므로서 비로소 東西 兩醫學의 二大脈流를 形成케 되자 西洋醫學에 對應하여 우리의 醫學을 우리의 것이라는 뜻을 強調하는 뜻에서 韓醫學이라 呼稱하였던 것이니, 이와같이 雜藥, 東醫學, 韓醫學 등 우리 民族醫學의 自主性을 守護키 위한 一連의 呼稱은 五千年 우리 民族史와 더불어 傳承된 우리 醫學의 脈을 連綿守護하려는 民族의 良心의 發露라 할 것이다. 또한 日帝의 植民地 政策으로 韓醫學이 國公立醫療機關에서 完全히 廢棄되면서 抹殺의 危機에 處하였던 40年間에도 우리의 韓醫學은 二千萬 民族의 血脈을 따라 三千里 方方谷谷에서 民族醫學으로 愛護되어 그 醫脈이 維

持되어 오던 중, 光復後 國民醫療法制定으로 韓醫師制度가 誕生되어 잃었던 韓醫學을 되찾게 되므로서 그 醫脈은 보다 綿綿히 繼承되어 왔으니 오늘날 비록 西洋醫學이 國策醫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施策上의 問題일뿐, 實質的인 韓國醫學의 主脈은 長久한 民族史와 더불어 오늘날 까지 이 民族의 保健을 擔當하며 傳承해온 韓醫學임을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이다.

### 三. 韓醫學과 文化的 矜持

오늘날 우리나라의 科學教育을 보면 西歐科學에만 置重하고 있을 뿐, 우리의 傳統科學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조차 하지 않고 있는 實情인데, 實은 오늘날 西歐科學이 무슨 永遠不變의 絕對的 眞理였던 것이 아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理論上의 肯否定을 反復하면서 發達해 온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發達해 나갈 未完成의 學問이고 보면, 우리의 傳統科學도 西歐科學에 비하여 相對的長短點을 가지고서 無限히 發達될 수 있는 異質의 學問이기에 西歐科學에 氣죽지 말고 積極的으로 研究하여 보다 包容性있고 廣範圍한 科學知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보면, 오늘날 西洋醫學이 최근 약 100년에 걸쳐 驚異的인 發展으로 우리 國民保健에 貢獻한 것은 事實이지만 韓醫學은 韓醫學대로 深奧한 學理를 바탕으로 數千年에 걸쳐 이 民族의 健康을 擔當하며 오늘까지 變遷發達해 온 것도 事實이니 이와같은 韓醫學을 우리는 지랑스럽게 國家的 次元에서 研究發展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私學에만 맡겨 놓고 있는 現實은 결국 自己弱화를 自招하는 誤策이라 思料되는 바이다.

이와같은 政策은 民族文化의 遠大한 發展보다 目前의 世界的 先進化를 指向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韓國의 特殊性보다는 世界的 普遍性을 追求만 하면 된다는 意識에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물론 우리도 先進諸國의 險列에 서기 위해서는 世界的 普遍性을 追求해야 하겠지만 그럴수록 그에 못지 않게 韓國의 特殊性을 追求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 民族에게는 그 民族의 特性이 있기

마련인 것이므로 우리 民族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無視하고 偏狹의으로 異質文化를 追求한다고 해서 우리 民族이 異質文化의 先導의 位置를 點하기란 實로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韓國觀光의 對象物은 世界的 普遍性이 담긴 現代的인 것, 世界的인 것 보다 韓國의 特殊性이 담긴 民俗的인 것, 韓國的인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世界的 普遍性을 追求하여 韓國最高의 現代的인 高層建物을 세워 놓았다고 하더라도 韓國觀光의 主對象物이 萬만큼의 世界的 耳目을 集中시키기에는 力不足인 現實로 思料되기에 眞情한 意味에서 世界속의 韓國의 힘을 誇示하기 위해서는 韓國의 特性이 담긴 우리의 것의 發展에 보다 積極的이고 眞實된 힘을 傾注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와같은 見地에서 醫學部門 역시 世界的 普遍性이 담긴 西洋醫學에 못지않게 韓國의 特殊性이 담긴 韓醫學을 國家의 次元에서 그 可能性을 積極的으로 支援啓發할 때 우리 韓國醫學은 그 韓醫學의 特殊性으로 해서 世界的 觀心과 耳目을 集中시킬 수 있는 先導的 位置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 民族醫學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世界에 誇示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늘날 西洋醫學이 여러 分野에서 驚異的인 發展을 해 온데 반하여 그 發展을 阻害하는 副作用 또한 看過할 수 없는 問題이고 보면 所謂 手術에 成功하고 목숨을 잃는 式의 盲點은 冷徹히 反省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自然觀을 學理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韓醫學은 分析的으로 어떤 疾病을 治療하기 보다는 綜合的으로 하나의 生命體를 治療하는 次元이기에 人類의 健康과 長壽를 追求하는 醫學本然의 目的에서 보면 보다 合理性이 있다고 思料되는 바 우리는 이와같은 側面에서의 醫學의 優秀성과 文化的 傳統性을 가진 韓醫學을 文化的 矜持와 民族的 自尊心을 갖고 宜揚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四. 民族醫學의 地位

既述한 바와 같이 韓醫學은 日帝의 民族醫學 抹殺政策에도 不屈의 意志로서 우리나라 醫學文

化의 主脈을 連綿히 繼承하여 왔으니 光復後 韓醫師制度가 誕生됨에 地位가 完全히 復舊되는 줄 알았으나 아직까지 植民地醫療會의 殘痕을 完全히 拂拭시켰다가에는 不足함이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國民醫療法 制定에서 韓醫師制度가 存廢의 論難끝에 힘겨게 誕生되던서 植民地 治下에서의 醫生의 恨을 풀기는 했지만 光復後 祖國에서의 民族醫學의 地位가 完全히 復舊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國民醫療法의 內容에서 韓醫師의 權利 位務가 醫師와 同等치 못한 缺格條項에서, 또한 政府의 偏狹된 醫療政策面에서 如實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 內容을 보면 첫째로, 國民醫療法에서의 韓醫師의 保健指導任務의 喪失이다. 即, 醫師와 齒科醫師에게는 各各 賦與되어 있는 保健指導任務가 韓醫師에게만 缺如되어 있으므로 韓醫師의 權限差等を 法的으로 規定해 놓은 第一例라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韓醫師의 差等待遇가 醫療法制定後 36年만에 비로소 그 權限을 찾을듯 保社部는 韓醫師의 保健指導任務를 賦與하는 立法豫告를 하여 韓醫界는 勿論 都市 및 農漁村 영세민의 큰 期待를 모았으나 不通過되므로서 그 希望은 또한번 挫折되고 말았다. 둘째로, 醫療技士法에서의 韓醫師의 醫療技士 指示監督의 缺如이다. 即 韓醫師에게만 醫療技士의 指示監督權을 賦與하지 않으므로서 現代 醫療機器를 活用할 수 없도록 한 韓醫師의 權限差等を 法으로 規定한 第二例라 할 수 있겠다. 醫療機器란 本來보다 效率的인 診療를 할 수 있기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고 보면 누구던 醫療人 이라면 必要에 따라 醫療機器를 충분히 活用할 수 있게 하여 醫療本然의 使命을 百分 發揮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인즉 오늘날 醫療機器가 오직 洋方醫療의 專用物인양 錯覺하고 있을 時代는 이미 지났다고 思料되는 바이다. 세계로 民族醫學에 대한 矜持와 自尊心 缺如의 醫療政策이다. 即 오늘날 國立醫科大學이나 國公立醫療機關에 韓醫學科나 韓方科를 設置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같은 制度의 淵源을 歷史的으로 추적해 보면 乙巳保護條約締結 二年後인 1907年 3月에 當時 朝鮮統監이었던 伊藤博文이 民族醫學

抹殺策으로 大韓醫院官制라는 것을 公布하여 國公立醫療機關과 醫科大學에서 韓醫學을 廢棄시키므로서 비롯된 것인데, 그後 80년이 지난 光復祖國이 오늘까지 그 憤怒와 屈辱의 制度가 그대로 持續되고 있으니 祖國이 獨立된 오늘에도 民族主體意識이 確立되지 못한 施策은 마치 우리가 우리 自意에 依하여 自招케 한 植民地時代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한편 이와같은 屈辱의 歷史의 制度나 政策이 어떤 知識層의 我執이나 構築된 勢力基盤의 固守 등의 利己의 目的에서 持續된 結果라면 마땅히 民族의 이름으로 指彈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主張을 提起하는 것은 萬一 우리의 主權이 日帝에 侵奪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西洋醫學을 導入한 開花期的 近代化政策에서 民族主體性에 依한 自主的 醫療政策의 實施하였을 것이니 民族醫學은 보다 積極的으로 研究啓發되어 오늘의 現實과는 判異한 地位에 處하여 있었을 것이며, 萬一 光復後 民族醫學의 地位를 缺陷없이 復舊시키는 大局的 醫療政策을 實施하였더라도 역시 오늘의 現實과는 判異한 大單元的 韓國醫學의 發展을 期約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民族醫學에 對한 이와 같은 差等的 實例는 最近의 國民醫療保險政策에서도 如實히 나타나고 있으니 洋方醫保實施 10年 後에 와서야 겨우 實施되는 韓方醫保에 대한 當局의 遲遲不實한 政策은 참으로 差等的 消極策을 如實히 表出시키

고 있는 것이다.

何如間 오늘에 와서 우리는 民族醫學으로서의 韓醫學의 位置를 손색없이 復舊시켜 韓國醫學의 特殊性으로서의 韓醫學을 世界醫學으로 指向發展시켜야 할 것이니 이것은 民族的 良心이요 時代的 要請으로 누구도 阻止抑制치 못할 歷史的 使命일 것이다.

## 五. 結 論

以上과 같은 論述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리는 바이다.

1. 오늘날 우리나라의 醫療施策에서 國公立醫療機關에서의 診療는 洋方에 專擔시키고 있지만, 實質的인 韓國醫學의 主된 脈流는 國民의 選好度나 傳統性 등으로 미루어 볼 때 韓醫學일 것인즉 이에 對한 基本對策이 再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韓醫學은 單純한 傳統醫學으로서의 文化的 意味뿐만이 아니고 醫學本然의 現實的 價値를 百分 發揮하고 있는 民族文化遺産임에 우리는 이에 對한 文化的 矜持와 民族的 自尊心을 갖고 國家의 次元에서 研究啓發시켜야 할 것이다.

3. 獨立된 主權國家로서의 民族的 良心에서 日帝의 殘虐的 醫療施策을 果敢히 拂拭시키고 民族醫學으로서의 地位를 缺陷없이 恢復시켜 韓國醫學의 特殊性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